

# 듀켄바이오, 파킨슨병 조기진단 새 길 열었다

대만 기업에 방사성의약품 기술이전  
파킨슨병 진단에 혁신적 역할 기대  
전립선암·뇌종양 포트폴리오 확대  
레켄비 출시와 함께 급성장 예상

국내 대표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듀켄바이오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1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듀켄바이오는 대만 바이오텍 PPhBio와 파킨슨병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18F-FP-CIT' 개발, 제조 및 상용화를 위한 독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18F-FP-CIT는 정맥 주사로, 뇌의 중요 영역인 선조체에 존재하는 도파민 운반체 밀도를 측정하는 데 쓰인다. 마약의 약효를 없앤 코카인 유사체가 도파민 운반체에 강하게 결합하는 원리가 적용됐다. 기존 진단제에 비해 결합 특이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파킨슨병 발병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작용하는 흑질-선조체 경로에서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 가능하다.

듀켄바이오는 18F-FP-CIT 생산을 위한 전구체, 콜드 키트, 카세트(원료 세트)를 PPhBio에 공급하고, 기술이전에 필요한 노하우와 교육을 제공한



방사성의약품 제조소에서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가속기를 사용해 방사성의약품의 주요 성분인 동위원소를 생성한다. /듀켄바이오

다. 대만 현지에서 제조, 품질관리, 배치 출사 시험 등 전체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만 현지 인허가 신청 및 상업화는 PPhBio가 주도한다. PPhBio는 핵의학 분야 전문가,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부합하는 제조시설, 전국적인 물류망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듀켄바이오는 국내 개발한 방사성의약품을 국내 최초로 수출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여 왔다. 2017년 호주와 뉴질랜드 수출을 시작으로 2019년 중국, 마카오, 홍콩 등으로 수출국을 늘렸다.

기존 방사성의약품 수출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성의약품은 의

약품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더한 것으로, 방사성동위원소의 반감기로 인해 수출은 불가능했다. 또 안정적인 공급에도 제약이 많았다.

해외 영토 확장과 함께 듀켄바이오는 올해는 치매 진단 영역에서 고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공동개발한 치매 신약 '레켄비(성분명: 레카네맵)'가 지난해 12월부터 국내에서 본격 발매됨에 따라, 해당 약물 처방을 위한 치매 진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레켄비는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표적하는 항체 약물이다. 레켄비 투약에 앞서 베타 아밀

로이드 축적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축적 정도와 치료 경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PET-CT 촬영에 듀켄바이오의 뉴라체크주사액, 비자밀주사액 등이 사용되고 있다.

듀켄바이오는 항암 분야에서도 방사성의약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쏟고 있다. 전립선암 및 뇌종양 진단을 위한 방사성의약품 18F-FACBC,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용 18F-FDOPA, 유방암 진단용 18F-FES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18F-rhPSMA7.3'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항암제 시장에서도 약 처방뿐 아니라 암 조기 진단 및 예방 측면에서도 검진이 활발해지고 있어 듀켄바이오는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듀켄바이오는 지난해 코스닥 이전상장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올해부터 매출 성장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 347억원, 2024년 356억원 등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했다. 또 현재 국내 진단용 PET 시약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CJ바이오사이언스 AI 감염진단 활용 항생제 내성 예측

CJ바이오사이언스가 11~1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2025 유럽임상미생물감염학회(ESCMID)'에서 AI 기반 차세대 감염진단 기술 연구성과를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ESCMID'는 120여개국, 1만 3000명 이상의 감염병 및 임상 미생물학 연구자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감염학회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감염진단의 핵심 과제인 '신속한 균주 분류'와 '정확한 항생제 내성 예측'을 AI로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42개 주요 병원성 세균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유전체 기반 계층적 분류 시스템'을 개발해 '신속한 균주 분류' 과제를 해결해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일반적인 균주의 분류부터 감염병 확산 시 추적할 수 있는 정밀한 역학조사까지 다양한 수준의 분석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기존 균주 판별 방식은 역학적으로 연관된 균주를 찾기 위해 모든 균주간 비교 분석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유사도가 높은 균주를 한 번에 판별해주기 때문에 기존 방식 대비 빠르게 균주를 확인할 수 있다.

'항생제 내성 예측 모델'에는 각 유전자를 둘러싼 주변 유전자 분포까지 고려하는 AI 언어 모델링 방식을 도입했다.

/이세경 기자

# “맥주 판 흔든다”... 롯데칠성 ‘크러시’, 청량한 혁신 시작

넓은 관습 깨고, 차별화 메시지 담아  
420ml, 1.6L 제품엔 투명 페트병 적용  
카리나 광고 모델 발탁 캠페인 전개

롯데칠성음료가 4세대 신 맥주 ‘크러시’를 앞세워 맥주 시장 판 흔든기에 나선다.

◆기존 맥주와 선 그었다...새 얼굴 ‘크러시’ 등장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23년 11월, 4세대 맥주 ‘크러시’를 선보였다. 개인의 취향과 자기 표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흐름에 맞춰, 기존 맥주와 차별화된 제품의 필요성에 착안했다는 설명이다.

제품명 크러시(KRUSH)는 ‘반하다’, ‘부수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크러시(Crush)’에 롯데칠성음료의 맥주 브랜드 ‘클라우드(Kloud)’의 이니셜 ‘K’를 더해 완성됐다. 넓은 관습을 깨고, 새로움으로



크러시 솔더리스병 제품 이미지. /롯데칠성

로 매혹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크러시는 페일 라거 스타일의 맥주로, 알코올 도수는 4.5도다. 제품은 ▲330ml, 500ml 병 ▲20L 생맥주(케그) ▲355ml, 360ml, 470ml, 500ml 캔 ▲420ml, 1.6L 페트 등 다양한 용량으로 출시된다. 이 중 420ml, 1.6L 페트 제품에는 투

명 페트병이 적용됐다. 해당 제품은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아 분리배출의 번거로움을 줄였으며, 가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사례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스타일도, 제조 기법도 새롭게

디자인도 새로워졌다. 크러시는 투명한 솔더리스 병을 도입하고, 겉면에는 빙산을 모티브로 한 패키지 디자인을 적용했다. 솔더리스 병은 병목과 몸통 사이의 어깨선을 없앤, 슬림하고 직선적인 형태가 특징이다.

크러시 캔 4종의 겉면에는 빙산과 눈을 배경으로 한 디자인을 적용해 청량감을 강조했다. 특히, 표면 질감 디자인 ‘아이스 타일’ 기법을 활용해, 눈 속에서 막 꺼낸 듯한 차가운 촉감을 구현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제조 방식에도 변화를 더했다. 크러시는 기존 맥주와의 차별화를 위해 분

리 추출한 유래피안 홉을 사용하고, 맥주를 끓이는 마지막 단계에 홉을 집중적으로 넣는 ‘홉 버스팅’ 기법을 적용해 시원하고 청량한 맛을 강화했다.

◆아이들에 팝업까지... 크러시, 소비자 마음에 가닿다

4세대 신맥주 ‘크러시’가 4세대 아이돌 ‘에스파’를 만났다. 롯데칠성음료는 에스파 멤버 카리나를 모델로 발탁하고, 광고 캠페인을 전개했다.

제품 출시 직후인 2023년 11월에는 첫 번째 광고를 통해 ‘기존 맥주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대의 맥주’, ‘나랑 어울리는 맥주’를 콘셉트로 4세대 맥주 ‘크러시’의 등장을 알렸다. 이어진 2차 광고에서는 기존 음주문화의 낯은 분위기를 깨고, ‘크러시’만의 매력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오스팀임플란트

### “치과 디지털 전환 강화”

‘원클릭’ 버전 2.0 공개

오스팀임플란트가 ‘클릭 한 번으로 만들어가는 디지털 치과’를 목표로 개발한 프로그램 ‘원클릭’ 재단장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자차트, 보험 청구 등 본래 기능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연동할 수 있어 치과 의사와 스태프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전자차트는 환자 진료 정보를 전자 파일로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업무 편의성은 물론, 종이 차트의 단점인 필체 식별, 정보 누락 등까지 보완해 준다. 또 기존 원클릭은 폭넓은 호환성을 갖췄다. 별도의 영상 장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타사 영상 장비와도 연결된다. 오스팀임플란트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과 연동하면 종이 차트를 손쉽게 온라인 차트로 변환할 수도 있다.

이번 ‘원클릭’ 버전 2.0은 편의성과 최적화에 초점을 맞췄다.

원코디 PC 버전의 경우 비교자료 생성, 치아별 현재 병력 표시, 지정된 폴더에 생성되는 사진을 빠르게 차트에 등록하는 스마트 기능 등을 추가했다. 모바일 앱은 비용계획 매뉴가 새로 생겼다.

원클릭 PC 버전과 앱 공통으로 최적화 작업을 통해 대메뉴 전환, 환자 인적 정보 조회, 예약 및 진료 내역 조회 등의 속도를 개선했다. 신규 디자인을 적용해 가독성과 시인성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 셀트리온, 호주서 안과·골 질환 등 품목허가 SK플라즈마, 인니 혈액제제 CMO 본격화

오세아니아 공략 본격화

셀트리온은 최근 호주의약품청(TGA)에서 안 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 골 질환 치료제 ‘스토보콜로’와 ‘오센벨트’의 품목허가를 연이어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이덴젤트(성분명: 애플리버셉트)는 아이리야 바이오시밀러로, 근시성 맥락막 신생혈관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허가 제형은 주사제(바이

알), 사전충전형주사제(프리필드시린지) 두 종류다. 아이덴젤트는 이번 품목허가로 퍼스트 무버 지위까지 확보했다.

셀트리온은 호주를 중심으로 오세아니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자가면역질환에서 안과, 항암 등으로 치료 영역을 확대하고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상반기 생산 투입 예정

인도네시아에서 혈장분획제제 플랜트를 건설 중인 SK플라즈마가 인니 혈액제제 위탁생산(CMO) 사업을 본격화한다.

SK플라즈마는 혈장분획제제 생산에 사용될 CMO용 인도네시아 혈장이 안동공장에 도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혈장도입은 2023년 인도네시아에 혈액제제 자국화를 위한 생산 설비를

구축기로 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당시 신규 공장 완공 전까지 SK플라즈마가 국가필수의약품인 혈액제제를 CMO 형태로 공급기로 했다. 자국민 혈액기반으로 한 안정적 혈액제제 공급을 위해 인도네시아 혈장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첫번째 혈장 도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고된 인도네시아 혈장은 금년 상반기 생산에 본격 투입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